

동정

- 회원사
- 관련기관

한국통신

ICIS용 주전산기 시험작업

한국통신 통합시스템 개발단은 통합 고객정보시스템(ICIS)의 하드웨어 선정작업의 일환으로 국산 주전산기의 성능 테스트 및 적용을 위한 테스트 베드(TEST-BED)를 구축, 지난 1월 1일 본격가동에 들어갔다. 한국통신의 테스트베드 실에는 현재 대우, 삼성, 현대, LG 등 국내 주전산기 생산업체의 4개 제품을 설치, ICIS 운용환경에 적합한 공동 플랫폼 구성 및 실행모듈의 호환성 여부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한 후 전산기기의 성능에 대한 국제적인 공인을 받기위해 국제 공인기관의 TPC에 시험을 의뢰할 계획이다. 한국통신은 충분한 성능 검증을 거친후 각종 요구조건을 만족시키는 국산 주전산기를 ICIS의 주력 지역서버로 선정할 계획이며 향후 KT용 주전산기(가칭 주전산기5)를 주문 생산할 계획도 갖고 있다.

한국통신은 성능 테스트를 올 6월안으로 끝내고 11월부터 광역 전화국을 대상으로 현장 시범운용을 거쳐 전국에 확대 보급할 계획이다.

한국 PC 통신

네티즌카페 하이텔프라자 용산에 개장

한국PC통신은 차나 음료를 마시며 PC통신과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는 네티즌 카페 '하이텔프라자'를 개장했다. 이 카페에서는 하이텔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하이텔과 인터넷을 접속할 수 있으며 리포트나 문서작성 등 간단한 PC작업을 할 수 있다. 또 하이텔 동호회의 세미나 워크숍 발표회 등 각종 행사나 이용자모임 등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이를 위해 한국PC통신은 용산 소프트웨어프라자내 25평 규모의 장소에 56Kbps급의 전용회선으로 연결된 펜티엄 PC 10대와 오디오, 비디오

TV 등의 장비를 갖췄다. 이 카페의 이용시간은 평일에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반까지 토요일과 일요일은 오후 5시까지이다. 첫째, 셋째 일요일과 공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데 이 콤

상반기중 인터넷폰 시범서비스

데이콤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일반 전화로 통화할 수 있는 인터넷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관련장비를 도입, 시험가동에 들어갔다.

이 서비스는 일반전화를 통해 전달된 음성데이터를 인터넷상에서 전송될수 있도록 서버해서 전화, 해당지역까지 전송한후 다시 그 지역의 서버에서 음성데이터로 바꾸어 수신자의 전화로 신호를 보내준다. 이를 위해 데이콤은 이스라엘 보컬텍사의 'VTG', 캐나다 비엔나 시스템사의 '비엔나웨이' 등 관련장비를 도입했다. 현재 연결된 지역은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뉴욕 등 대도시와 캐나다의 일부지역, 이스라엘 등이며 필요한 경우 접속국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인터넷폰은 상반기중에 일반인들을 상대로 시범서비스에 들어갈 계획이다. 데이콤은 이와함께 자회사인 데이콤 인터넷내셔널(DI)을 통해 보컬텍사의 인터넷폰인 VTG제품의 국내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통신, 아이네트 등 인터넷서비스업체(ISP)들도 올해안에 정보통신부에서 인터넷폰 사업을 허용할 것에 대비 관련 장비 도입을 추진하는 등 인터넷폰서비스 준비작업을 활발하게 추진하고 있다.

JCR신용평가 A등급 획득

데이콤이 단일 민간기업으로서 국내 처음으로 일본의 유명 신용평가기관의 하나인 JCR사로부터 기업신용평가 A등급을 지난 1월말 획득했다.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간에 걸쳐 JCR사가 수행한 경영환경 전반에 걸친 평가에서 경영효율성, 고객만족도, 성장성 부문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A등급을 획득했다. 이로써 데이콤은 국내 금융시장은 물론 해외 직접금융시장에서도 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데이터시스템

조달EDI시스템 개발업무 수주

삼성데이터시스템은 조달청의 조달EDI시스템 개발업무를 수주했다. 조달청은 1월초에 있는 기술입찰에서 시스템개발 적격업체로 선정된 삼성데이터시스템(SDS), LG-EDS시스템, 현대정보기술(HIT) 등 3개사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을 실시, 최저가인 11억 8천9백만원을 제안한 SDS를 전담사업자로 선정했다. SDS는 올해말까지 개발을 완료하기 위해 정부 EDI/EC지원 센터 구축을 비롯해 조달청의 전체조달업무 중 내자구매(비저장품 단가계약), 시설공사, 경리(보증금 수납) 등 주요 3개분야 프로세스에 대한 전자문서 교환, 처리와 내자구매 비저장품 단가계약의 프로세서 개발에 곧 착수하게 된다.

AT&T와 월드넷 서비스

제공협약 체결

삼성데이터시스템은 지난 1월 28일 미국 AT&T와 인터넷 분야에서의 협력계약을 체결하고 국내에 월드넷 브랜드의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AT&T의 월드넷 서비스는 지난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터넷 기반의 온라인 서비스로 미주, 유럽, 아시아 등을 연결하는 글로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SDS가 이번 제공하는 서비스는 월드넷 다이얼 업 서비스를 비롯 인터넷 전용선 접속서비스와 전자우편, 인터넷 팩스, 웹호스팅, EDI 등이다. SDS는 미국 AT&T로부터 월드넷서비스의 네트워크 설계와 마케팅, 고객관리 등에 관한 기술을 제공받아 오는 4월말까지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5월부터 서비스제공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전자상거래 서비스에도 나설 계획이다.

또 AT&T가 추진하는 국제로밍 서비스망이 구축되면 이의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SDS는 이번 제휴를 계기로 ISP 사업에 본격 진출하게 됐으며 해외 ISP업체가 국내 시장에 진출한 것은 미국PSI사에 이어 두 번째이다.

한국무역정보통신

정보통신정보 메일서비스 제공

한국무역정보통신은 미국 퀘스트온사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우편을 통해 미국의 정보통

신 관련 최신 정보를 제공해주는 회원제 서비스에 들어갔다. 가입자를 대상으로 전자우편을 통해 한달에 2회 정기적으로 제공하는 이 서비스는 신문, 잡지, 출판물 등 각종 뉴스매체에 게재된 미국내 정보통신 관련 최신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한 것으로 해당기업의 연락처, 취급품목, 시장전망 등 기업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를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 서비스의 인터넷 주소는 <http://www.ktnet.co.kr/newBusiness>이며 구독료는 월 1백 달러이다. 퀘스트온사는 지난해 미국 넷스케이프사와 다우기술의 공동사업을 중계하는 등 국내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유망 컨설팅 업체이다.

LG 정보통신

패리년사와 전송분야 공동 마케팅 협정 체결

LG정보통신은 미국 해리스그룹의 통신시스템 전문업체인 패리년사와 1백55Mbps급 광전송장치와 마이크로웨이브 장비 등 유무선 전송장치의 공동마케팅을 위한 협정을 체결했다. 이번 협정은 LG정보통신의 동기식 광전송장비와 패리년사의 마이크로웨이브 장비를 결합한 유무선 통합전송시스템을 개발하고 이에 대한 공동마케팅을 추진키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양사는 이미 SONET(동기식 전송방식) 및 SDH(동기식디지털계위방식)로 각각 연동이 가능한 통합시스템을 개발, 상용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쌍용정보통신

“에코”서비스 선언

쌍용정보통신은 지난 2월 5일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AS 강화 프로그램인 “에코(ECO)”를 공식 발표했다. “에코”는 고객의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 해결함으로써 고객만족도를 극대화하는 것으로 전사적인 차원에서 AS체계를 재구축 및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쌍용정보통신은 시스템통합사업에 맞는 최적의 AS모델 개발 및 실행, 프로젝트의 성능업그레이드를 위한 적절한 시기와 방법 제공, 고객의 비즈니스에 최대의 효율을 보장하는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밀착 분석, 최신 기술정보의 효과적 제공 등을 통해 고객이 정보시스템을 최대한 활용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해 미흡한 점을 각 사업팀에 고지, 고객서비스를 향상시킬 계획이다. 이를 위해 쌍용은 최근 사내 통합마케팅 조작을 대폭 강화, AS체계 구축을 위한 업계 및 고객사 현황 조사에 나섰다.

코오롱정보통신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

코오롱정보통신은 최근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코오롱정보통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는 회사소개, 사업영역, SI솔루션, AS센터, 뉴스모음, 광고모음 등 메뉴로 구성되어 있

며 동아리 소개, 사보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인터넷 홈페이지 개설과 함께 코오롱정보통신은 사내 직원들간의 정보공유 및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인트라넷을 구축, 서비스에 들어갔다. 코오롱정보통신의 인트라넷은 게시판, 편지함, 자료방 등으로 구성, 직원들간에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도록 설계됐으며 향후에는 전자결재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한전정보네트웍

ISO 9001 & TickIT 획득

한전정보네트웍(주)는 최근 ISO 9001과 정보기술산업의 인증규격인 TickIT 인증을 국제 품질인증기관은 영국의 로이드사(LRQA)로부터 동시에 획득했다. ISO 9001은 제품의 설계에서부터 생산, 설치,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전 부문에 적용되는 가장 광범위하고 종합적인 국제품질보증 규격이며 TickIT은 영국 상무성에서 제정한 소프트웨어 개발표준이다. 한전정보는 SW 개발 및 운영, 통신 및 CATV 위탁운영, 정보통신망 설계/설치/시공과 서비스 분야의 품질인증 획득을 위해 지난해 4월 Task Force Team을 구성하여 사내품질시스템 구

축을 시작, 내부품질감사와 11월의 예비심사 및 12월 본심사를 거쳐 '97년 2월 5일 인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이날 최대용 사장은 “ISO 9001 획득은 고객지향적 품질경영의 초석이며 앞으로 전 직원이 이를 유지, 개선,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한 사업별, 업무별 품질 책임체제를 확립하고, 모든 업무는 품질보증절차서를 준수하며, 연 2회이상 내부품질감사를 실시하는 등 실질적인 품질경영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여러 실천방침들을 발표하였다. 이번 ISO 9001 인증 획득을 계기로 한전정보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생산능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으며 지난해 가졌던 VISION 2005의 장기 경영혁신과 더불어 회사발전의 토대를 마련한 셈이다. 뿐만 아니라 모기업인 한국전력의 위탁업무수행을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함은 물론 국내외의 시스템 통합(SI) 및 운영(SM)사업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한전정보네트웍이 영국 로이드사로부터 ISO 9001 및 TickIT 인증서를 받는 장면